

코로나19 고용위기 회복 양상과 향후 전망

김 유 빈*

2021년은 코로나19발 고용충격으로부터 노동시장이 견조한 회복세를 보인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감염병 재확산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던 1분기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기저분을 20만 명 가량 상회하는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졌고, 우려가 컸던 일시휴직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도 점진적인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1년 10월, 계절조정 취업자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전의 고점인 2020년 2월 대비 99.9%까지 회복한 상황이다. 100% 회복까지는 36천 명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남은 2개월간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의 회귀를 기대해 볼 만한 수준이다.

2021년 노동시장은 고용의 전반적 회복 추세하에서 비대면·사회서비스업 위주의 고용 증가와 대면서비스업의 고용 침체 지속, 청년 및 고령층, 상용·임시직 위주의 취업자 증가 등 고용 회복에 있어서의 양극화 추세로 요약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경우에 따라 디지털·비대면 전환 촉진으로 오히려 상대적 호황을 겪고 있는 비대면서비스업·공공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업의 고용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서비스업은 교육서비스업 외에 유의미한 고용 증가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고용 증가를 견인해 온 건설업은 앞으로의 업황과 고용에 있어서도 긍정적 요인이 잔존해 있는 반면, 제조업은 아직까지 코로나19 이전의 추세적 하락세에서 재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 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부터의 고용 충격이 집중되었던 청년층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타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파른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층은 큰 폭의 인구 증가세와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지속 추진의 영향으로 큰 위험요인 없이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직 고용의 가파른 회복세가 눈에 띈다. 2020년 이례적인 수준으로 급감한 임시직 고용은 2021년 1월 이후 가파르게 회복해 상반기 내 코로나19 이전의 고용 수준을 이미 회복했다. 비대면서비스 활황과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사회서비스업과 운수창고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임시직 회복은 기대에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증가폭이 주춤했던 상용직 고용은 올해 증가폭을 다시금 늘려 코로나19 이전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ykim@kli.re.kr).

수준의 취업자 증가폭을 달성했다. 취업자 전반의 회복을 견인한 건설업 업황 회복을 계기로 크게 증가했으며, 운수창고업과 금융보험업, 사회서비스업의 상용직 고용 증가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면서비스업의 취업 비중이 높은 일용직의 경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회복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고용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의 업황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경우, 일용직 고용은 건설업에서 고용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올해 노동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고용원 유무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난 자영업자의 고용동향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고용은 아직까지 양호하나, 고용주 고용은 예상했던 반등세에 크게 못 미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 역시 경기둔화로 인한 임금노동의 부족과 고용조정 결과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최근의 자영업자 증가 추세는 통상적인 회복 양상과 거리가 멀 수 있음에도 주의해야 한다.

2021년 12월호 『노동리뷰』는 2021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2년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양상이 영역과 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감염병 확산과 거시경제 상황에 있어 특이점이 발생치 않는다면 2021년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352천 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 측면에서 국내의 전망기관들은 한국경제가 현재의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2021년에는 4.0% 수준의 성장으로 마무리한 뒤, 2022년에는 내수 회복을 토대로 3.0%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비대면서비스업 및 건설업의 활황과 대면서비스업의 점진적 회복을 기대해 볼 만하나, 대내외적으로는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 원자재 수급불균형과 글로벌 물류 차질, 미중 간 무역갈등 심화 여부에 따라 경제회복이 지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상기의 전망요소를 반영하여 추산한 한국노동연구원의 2022년 고용 전망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확산추세 심화, 글로벌 경제 및 내수시장 위축 등 경기 하방 위험요인을 동반한 특이점이 발생치 않을 경우, 2022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24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반기 고용동향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저하고를 나타낸 2021년의 기저영향으로 2022년 상반기에는 367천 명, 하반기에는 119천 명 증가하는 상고하저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일별 신규확진자 수가 5,000명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의 재유행과 변이 발생이 가져올 수 있는 불확실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이 감염병 발생 이전의 수준에는 이르렀지만, 장기적 회복 추세로의 회귀까지는 여전히 요원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내년 3월 대선은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과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정책방향 설정을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 개선, 감염병 확산세 진정과 고용 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실효를 거두어,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노동리뷰』 집필진을 포함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들은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도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기별 이슈를 다룰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KL**